

사이버 공간에서 길찾기

전자상거래 입문서에서 실용서까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상거래의 중심축으로 부상할 공산이 커지면서 나홀로 기업인부터 대단위 기업체까지 실용화하기 위한 노력이 배가되는 가운데 관련 도서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개념을 설명한 입문서부터 실무에 응용할 수 있는 실용서까지 다양하지만, 선택과 응용에 신중할 일이다.

실무기법을 토대로 전자상거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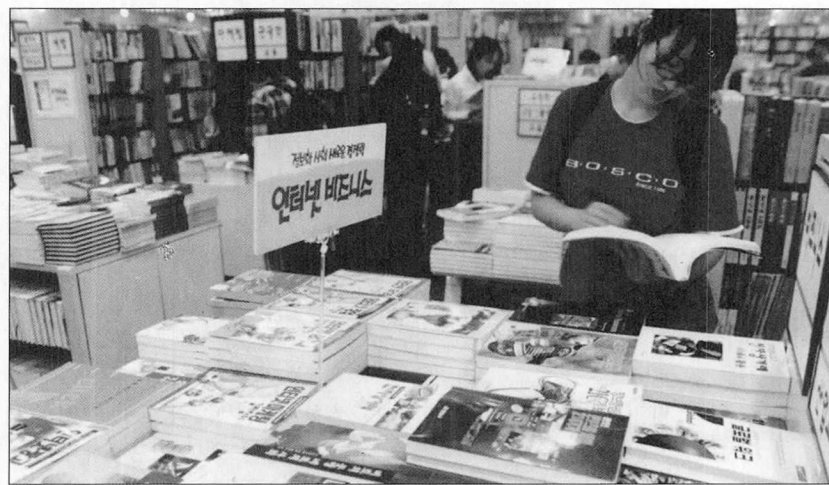
입문서는 대부분 전자상거래의 기본개념, 발전방향과 속도, 이용방법, 그리고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인터넷 시장을 지배하는 9가지 법칙을 소개한 《웹경제학》(에번 I 슈워츠)과 가상사회를 틀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유통혁명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 《가상사회와 전자상거래》(존 하겔 3세 외),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상품유통의 디지털화, 인터넷 쇼핑 등을 소개하며 오늘날 전자상거래의 전략과 향후 대응책을 모색한 《전자상거래 혁명》(미국 상무성)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전자상거래가 늘면서 분쟁 또는 범법의 문제가 빈발하는 현상을 기초로 법적 대응책을 소개한 《전자상거래와 법》(최경진)과 《인터넷 상점 개설법》(松本洋志), 정보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영향을 살핀 《전자상거래의 이해와 활용》(이상진·이충배)과 《전자상거래를 위한 MTS》(임강진) 등도 전자상거래에 입문하려는 독자의 욕구를 채워줄 입문서에 해당한다.

다양한 입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자상거래를 시도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기본 골격이 외래 경영기법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이론 또는 실무 기법을 충분히 배워야 한다. 《인터넷 비즈니스》(청양)의 저자 오익제 전자상거래 마일 춘장은 “(인터넷) 창업은 누구나 자유 의지로 가능하지만 불행히도 사업의 성패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로 ‘알만큼 알고 시작할 것’을 조언한다.

알면 약이 되는 책 다양

오늘날 컴퓨터의 대중화로 누구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전자상거래에 능통할 수는 없다. 전자상거래의 한 분야에 속하는 인터넷 서비스만도 전자우편시스템 등 수많은 방식이 있고, 사회·문화적인 외부조건도 까다롭다.

초고속 정보고속도로의 개설과 강력한 소프트웨어 개발로 점점 가상 공간을 활용하는 사이버 기업이 늘고 있는 현상을 토대로 21세기형 기업을 전망한 《사이버 기업》(제임스 마틴)은 총론에 해당하는 실용서. 《인터넷 비즈니스》(주재훈)와 같은 제목 《인터넷 비즈니스》(네티스트), 《인터넷이 기업경영을 바꾼다》(권순범 외), 《인터넷과 비즈니스 혁명》(오마에 겐이치) 등은 기업 차원에서 정보자원의 집합체인 인터넷을 광고·마케팅·전시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인터넷과 아이디어를 무기로 창업의 세계로 뛰어든 창업자를 위한 《전자상거래 창업》(남영기·김덕곤)과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돈이 보이는 인터넷 마케팅》(박건양), 《인터넷 창업 길라잡이》(남경두·김



전자상거래가 부상하면서 관련도서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중) 등은 대단위 기업뿐만 아니라 최근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한 ‘나홀로 창업(SOHO)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전자상거래는 가상공간을 매개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감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한다. 무역은 어느 분야보다 많이 응용될 것이다. 항상 노출된 사이버 공간은 광고매체로서의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인터넷 무역 길라잡이》(21세기 지식경영연구소)와 《인터넷 무역》(권제근·김희수) 등은 무역 실무

에 응용할 수 있는 전략을 다루고 있다. 광고분야 도서로는 《인터넷 광고》(임종현)과 같은 제목 《인터넷 광고》(남용식·박세환), 그리고 《사이버 시대, 홍보 벗기기》(이종혁) 등을 꼽을 수 있다.

관련 도서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응용분야는 넓다. 그러나 이를 선택하고 응용하여 성공할 수 있는가는 모두 개인의 책임이다. 전자상거래를 일상에서 이용하는 소비자 역시 이에 대한 지식은 약이 될 만하다.

—오완진 기자

< 전자상거래 관련 책 >

분야	제목	출판사
입문	가상사회와 전자상거래	세종서적
	웹 경제학	세종서적
	전자상거래를 위한 MTS	영진
	전자상거래와 법	현실과미래
	전자상거래 이해와 활용	두남
실용	전자상거래 혁명	21세기북스
	돈이 보이는 인터넷 마케팅	무당미디어
	사이버 기업	대교
	인터넷과 비즈니스 혁명	길벗
	인터넷 비즈니스	비봉
	인터넷 비즈니스	청양
	인터넷 비즈니스	현대미디어
	인터넷 상점 개설법	성안당
무역	인터넷 창업 길라잡이	정보문화사
	인터넷이 기업경영을 바꾼다	영진
	전자상거래 실무	한네트웍스
	전자상거래와 창업	커뮤니케이션북스
광고	인터넷 무역	매일경제신문사
	인터넷 무역 길라잡이	정보문화사
	사이버 시대, 홍보 벗기기	도서출판원
	인터넷 광고	동진출판사
	인터넷 광고	한네트웍스

사이버 세계를 지배하는 영웅 이야기

오늘날 사이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다수가 성공의 대명사로 불린다. 소프트웨어 개발로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된 빌 게이츠, 인텔의 창립자 고든 무어, 넷스케이프를 만든 마크 테일 등 헤이릴 수 없을 정도다. 이들의 성공 비결을 소개하는 저자 서기를 채우는 것도 그만큼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이다.

《실리콘 밸리의 미치광이들》(최원기, 민음사)과 《실리콘 밸리의 영웅들》(산타클라라 밸리 역사협회, 21세기북스) 등은 실리콘 밸리에서 별나게 활동하던 인물과 성공담을 소개한다. 뒤는 개성과 아이디어로 사이버 업계의 풍운아로 등장한 안호 전문가, 웹 디자이너, 벤처 캐피탈리스트, 게임 프로그래머 등을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21세기 직업형까지 제시한다. 웹의 탄생에서 디지털 혁명까지 천일야화를 그린 《인터넷을 움직이는 사람들》(로버트 리드, 김영사)는 8명의 인터넷 혁명가를 조망한다. 실리콘 밸리 벤처 1호로 미국 최우수 기업

휴렛 팩커

드의 성공

비결을 담

은 《휴렛

팩커드 이야

기》(데이비

드 팩커드,

중앙M&B)는

여명기부터

10만여 종업원

을 거느린 기업으로 성

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폈다.

실리콘 밸리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공한

기업가를 소개하는 책도 많다. 빌 게이츠의 도

전과 성공담을 담은 《미래로 가는 길》(빌 게이

츠, 삼성)과 디지털 혁명의 선두주자인 인텔

사이드를 조망한 《탁월한 관리》(앤드류 그로

브, 대경출판) 등도 이에 해당한다. <오완진>

